

의료계 파업... 대화없는 의-약-정-민

“한발씩 양보 생명 살리자”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 알을 가지고도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신의와 배려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재산이다. 하지만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한 달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을 보고 있으면 신의와 배려라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계는 구속자 석방 등의 협상 선결조건을 내세워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정부는 “잘 것 다 됐다”며 관련자 처벌 등 강경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마저 15 일 범약계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계 폐업에 맞대응하겠다고 나섰고, 시민단체와 노동계 종교계가 참여한 범국민대책회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의료계 집단폐업 협회를 위한 시민규탄대회를 여는 등의 실

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의-정-간에 형성됐던 대립구도가 의-약-정-민 4중 대립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모두 이유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정-간의 대립이 자존심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고, 의료계의 요구는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계나 정부의 주장이 옳건 그르건 간에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솔직히 인정했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자세고,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의 요구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다보니 대화가 될 리 없다.

〈백유경〉에 이런 실화가 있다. 다섯 사람이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을 찾

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빨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의 옷을 빨아달라고 말했다. 입장이 난처해진 집안 일을 돌보러 온 사람은 “먼저 부탁한 사람 것부터 빨고 난 뒤 순서대로 옷을 빨아주세요”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벌떡 화를 냈다.

한 사람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너를 샀는데 어쩌서 저 사람의 옷은 먼저 빨아 주고 내 옷은 늦게 빨려고 하느냐”하고는 곧 열 대의 곤장을 때렸다. 다른 사람도 화가 나서 모두 열 대씩 때리자 그 사람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큰 교훈이 담겨져 있다. 대화와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내세우고 고집을 피울 때 대화는 이뤄질 수 없으며 화합될 수 없다. 물론 대화를 무인칙한 타협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우선시하려는 것이다.

대립과 투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원칙과 한심한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료계에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료계가 자신들만을 위한 ‘집착’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나를 다스리는 왕과 왕이 싸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바라문과 바라문도 다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한 바라문의 질문에 부처님은 “왕과 왕이 싸우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 때문이며, 수행자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방동경〉에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고집과 허욕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다보면 제각각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참뜻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의료계가 먼저 폐업을 풀고 대화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며,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그만 할 때다.

현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 남으로 왔다. 오직 아들 하나만을 기다리며 절에서 긴긴 세월동안 기도하고 살아왔다는 신재순(89) 할머니와 김일성대학 수확박사가 되어 돌아온 아들 조주경(68)과의 만남.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 할머니의 아픈 아픈 시간들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다. 애타는 그리움 슬픔, 피우고 또 피운 향불과 촛불과 수십만 번의 절과 쌓은 공덕과 보시를 섞어 피륙처럼 엮어온 시간.

50년 이산과 짧은 만남

서울의 한 무용연구소에 춤을 배우러 갔다가 실종되었던 소녀가 북의 한 대학교수로서 50년만에 흥겨운 어머니와 언니 동생들을 만나러 오고 있었다.

“오빠야!” “어머니!” “언니!” “누님!”

어머니(88)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소리쳐 부르며 고 말(62)은 오빠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55년이면 넉넉하게 날아올 수 있는 평양과 서울 사이의 공간을, 북한의 국기가 그려진 고려항공기는 50년의 피맺힌 그리움과 슬픔의 시간을 넘어 서울 김포 공항으로 날아들어오고 있었다.

한반도의 역사는 잔인했다. 누가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헤어져 살게 해놓았는가 50년만에 다시 만나게 해주고 있는가. 한반도 한복판에 현대의 눈물겨운 신화 한바탕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과 북 이산가족 만남의 자리 가 마련된 서울 코엑스 종합전시장과 평양 고려호텔에는 수백 개의 신문 방송의 특종감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유통되고 있었다.

나를 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북에서 온 임재혁(66)이라는 남자와 남쪽에서 사는 그의 아버지의 만남이었다. 임재혁은 청구중에서 다니다가 의용군에 나갔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망신고를 했다. 50년 만에 저승에서 돌아온 듯한 임재혁은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를 불렀다. 한때 아버지는 치매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반가운 표정 한 번 짓지 못했다. 아들은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비틀거리고 땅을 치면

서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통곡을 했다. 하얗게 지워지고 없는 그 아버지의 기억과일이 한반도의 아픔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다.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돌아온 이종필과 그의 어머니 조원호(100)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아! 그렇다”하고 탄성을 질렀다. 조원호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들 딸 며느리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죽었던 아들 종필이가 돌아왔다고 말하자, “우리 종필이가? 아이고 우리 종필이가?”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은 채 말을 한 것이었다. 이종필은 100살난 어머니를 부둥켜안은 채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통곡을 했다.

1992년에 발표한 ‘아, 나의 어머니’라는 시로 이미 남쪽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북의 계관시인인 오영재(66)는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형과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울부짖었다. 그는 그 동안 어떻게 견디어 왔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슬픈 양금같은 말 한마디를 밝혔다. “꿈길에 수만번 오가면 바위도 모래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오는 길이 이렇게 모래밭길인 것이다.”

희망 있으니 슬퍼 말자

그가 쓴 시 한 대목이 떠오른다. “늙지 마시라, 어머니... 세월이 게 서거라. 통일이여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너 거머가 가아 한다/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나에게 다와/내 어머니 뉘까지/한 해에 두 살씩 먹으리.”

우리 슬퍼만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남과 북의 만남과 화합은 이제 시작이다. 바야흐로 통일 물꼬가 트였다. 경의선 경원선이 이어지면 우리 물품이 값싼 운송료를 물고 그 선을 타고 대륙으로 팔려갈 것이고, 우리들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기차를 타고 오가며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남의 기술과 북의 노동력이 만나 양쪽이 다 잘 살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장에는 한 팀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한 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북도가 될 것이고, 이 우주의 한 부들 떨고 비틀거리고 땅을 치면



한승원 (소설가)

‘시내버스 바로세우기’ ‘좋은 택시 만들기’

대중교통 고발사이트 인터넷 시민운동 활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대중교통 고발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운전기사가 시작한 ‘시내버스 바로세우기 운동 (buslove.hihome.com)’은 버스회사의 불법을 운전기사가 직접 고발하는 사이트로 인기가 높다.

“좋은택시만들기(www.goodtaxi.pe.kr)”와 “나쁜택시만들기(www.badtaxi.pe.kr)” 사이트는 택시의 불법 운영 등을 고발하는 사이트. 이곳에서는 승차거부, 합승 뿐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택시기사, 단배를 피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들에 대한 고발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메트로인포(www.metroinfo.co.kr)’는 매주 지하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공개하고 있다. 또 ‘버스닥(www.busdaq.co.kr)’은 시민들이 칭찬이나 고발하고 싶은 버스를 인터넷에 올리면 게재된 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주가를 산정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일본 정부 사죄하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모공원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희생자 범국민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희생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실업급여 가짜 수령 늘고 있다

실업급여와 채용장려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96년 50명에 불과했던 실업급여 부정 수령자가 지난해 말에는 8천222명으로 160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2천4백40명이 8억2천8백만원의 불법으로 뒀다. 기업체 채용장려금의 경우는 올 상반기에만 95건(36억여원)의 부정수령 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82건을 넘어섰다. 이는 당국에 적발된 건수이므로 실제 부정수령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진실로 내 것이 아니면 버리라”고 강조했다. 이 말 속에는 재산과 권력, 명예와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포함된다.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실업급여와 채용장려금 제도는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재취업 등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96년부터 도입한 것이다. 바로 그런 제도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인가. 자기 자신마저 버리라는 쿠차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삶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인간배아 복제 英, 세계 첫 허용

영국이 의료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 복제를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영국 정부는 16일 최근 제출된 ‘초기 단계 배아에서의 간세포 복제’라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번식을 목적으로 한 복제는 계속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배아의 간세포를 이용해 백혈병, 파킨슨병, 치매 등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혁명’ 시대 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져 갔다.

그러나 이같은 복제가 허용될 경우 완전한 형태의 인간복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리는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아 자체도 생명으로 여기는 불교 등 종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불교는 과학의 발전이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에 바탕이 되어야 하며,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아무런 의학발전도 위한 목적 없이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수반한다면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폐기물 예치금 대폭 인상

환경부는 15일 병행 등 각종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예치금을 최고 7.5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 용기로 쓰이는 종이팩의 경우 250ml 이상 증대형 제품은 개당 40원에서 3원으로 7.5배 오르고, 화장품 및 살충제 용기와 형광등이 이번 폐기물 예치금 부과 품목으로 편입됐다.

순수한 경면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

“오복을 가져오는 생전신세에 응의 공을 꾸세요.”

승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귀중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반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액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묵화 방식 총연합회 인준 100% 효과

복합 및 방문수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설계, 가정문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서울총회 28707-0452510 조정순 씨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바로보인 환단고기 1

대원 문제현 역자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쫓아라!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 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이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4권에서는 해국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통복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문론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백양경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초월해 세상을 복심사

바로보인 출판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111-1111

http://www.zenparadise.com 597-2460

보덕현호 시집

사랑과 時 바람의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휩싸고 돕는다. 미연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당신이 멀고 있으면 바람은 당신을 감싸 녹여 준다. 당신이 멀다고 떨쳐 버려도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속에도 입가에 도는 손끝 흔들리는 옷자락에도 바람은 살며시 숨어 있지요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듯이 바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것을 감싸고 달래주면서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며 허공에 내려를 뿜는다.

A5신 144쪽 값 4,5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4,5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 해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도서 출판 정화사

총발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 867-4000 Fax: (041) 867-4001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 (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유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담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행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칭 관음지장선종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남표 개설 사업 운영등

◆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교법반 9명

◆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 개강일시 : 매월 11월 11일 21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립정토종대학에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도, 포교원(사찰청년)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문인식을 불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월 회 비 : 백미한기(숙식제공)